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18, pp.1-43
<https://doi.org/10.29212/mh.2021..118.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25전쟁기 서해 유엔해군과 반공 유격부대 간의 협력관계 형성과정 연구*

김인승**

1. 머리말
2. 영국해군의 서해 해상봉쇄 시작과 작전 운영상의 한계
3. 반공 무장집단의 등장과 한국해군을 통한 초기 해상 협력관계의 형성
4. 레오파드 조직의 등장과 해상 협력체계의 구축
5. 맺음말

1. 머리말

6·25전쟁기 수행된 유엔군의 특수작전(Special Operation)은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1298)

**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있어 여전히 그 성과가 미진한 분야 중 하나이다.¹⁾ 특히 미8군(Eighth US Army, Korea)의 지원과 통제하에 전전(戰前) 북한 출신의 반공주의 청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반공 유격부대의 활동상은 “그중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일 것이다.²⁾ 이들이 미군에 의해 조직 및 운영된 비정규군(irregular) 신분의 비밀부대였을 뿐 아니라, 반공 유격부대의 작전 대부분이 미군의 느슨한 감시하에 수행되어 대원들의 활동상을 면밀히 기록한 자료가 제한적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이다.³⁾ 따라서 반공 유격부대 활동과 관련한 그간의 연구는 미 육군에서 전훈(戰訓)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한 몇몇 실무 보고서(working paper)와 유격부대 관계자들에 의해 후술된 증언자료를 중심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었다.⁴⁾

문제는 미측 보고서와 증언자료 모두가 6·25전쟁기 반공 유격부대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이들 각 각이 반공 유격부대의 다양한 활동 중 일부 영역에 대해서만 설명력을 갖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증언자료의 경우 기술 가능한 시간

-
- 1) 정용욱, 「[書評] 한국전쟁기 특수전 연구와 Dark Moon」, 『軍史』 40, 2000, 274쪽.
 - 2) Ben S. Malcom, *White Tigers: My Secret War in Korea*(Washington D.C.: Brassey's, INC, 2003), p. xi.
 - 3) 김인승, 「한국전쟁 해전사(海戰史) 연구자료의 발굴과 그 효용성: 영국해군의 ‘작전기록’을 중심으로」, 『軍史』 110, 2019, 397쪽; 6·25전쟁 당시 작성된 1차 자료는 반공 유격부대원들이 보고한 작전활동 결과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한 자료인 첩보 수집보고(Intelligence Report)가 대부분이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Record Group 349(RG349) 내 CCRAK(Combined Command for Reconnaissance Activities, Korea) G-2 Report에 담겨있다.
 - 4) 미측이 작성한 실무보고서는 다음의 2편이 가장 대표적이다. U.S. Army Forces, Far East, 8086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1951-1952”, Project MHD-3, Tokyo (March 1954); Frederick Cleaver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Study, Operations Research Offic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6); 참전 대원 혹은 이들이 소속된 전우회에서 발간한 증언자료 및 회고록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조성훈, 「증언자료의 비판적 활용-6·25전쟁 시기 유격대의 경우」, 『기록학연구』 12, 2005, 141~153쪽.

과 공간의 범위가 철저히 증언자 개인의 경험 및 기억의 영역 내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⁵⁾ 미측 보고서의 경우 증언자료에 비해 설명의 포괄성 면에서는 우위에 있지만, 이 역시 반공 유격부대의 여러 활동 중 미 육군이 직접 관여한 부분을 중심으로만 기술되어 있다. 실제 미 보고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듯 유격부대원들의 활동 중 “기여도(contribution)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유엔 해군작전 지원과 관련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역할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기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⁶⁾

결국 6·25전쟁기 반공 유격부대 활동과 관련한 연구의 진일보를 위해서는 기존에 조망되지 않은 유격부대원들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사료의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된 자료들만으로는 제대로 설명되기 어려운, 하지만 반공 유격부대의 활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유엔해군과의 협력관계를 구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유격부대의 작전활동에 있어 유엔해군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였다. 반공 유격부대의 작전이 백령도, 초도 등 서해 이북 도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이들 유격부대의 작전은 필연적으로 유엔해군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에 대한 심층연구를 위해서는 해당시기 서해 전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함정의 작전기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자료가 바로 6·25전쟁기 영국해군(Royal Navy)의 작전기록이다. 1950년 7월부터 정전협정

5) 참전용사의 회고록 중 서술의 객관성과 깊이 측면에서 특히 유용성이 높다고 평가 받는 전(前) 미 유격부대 고문관 말콤(Ben S. Malcom)의 저작 역시도 자신이 담당했던 백호부대(동키-4)의 10개월 간 활동에 대해서만 자세히 기술하고 있을 따름이다. Malcom, *White Tigers: My Secret War in Korea*.

6) Frederick Cleaver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p. 55.

체결 시까지 북위 37도 이북의 서해전역에 대한 해상 봉쇄작전을 지휘하고 운영했던 주체가 바로 이들 영국해군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당시 유엔해군과 반공 유격부대 간의 협력관계를 담은 기록들이 대부분 영국 국립문서보관소(The National Archives, Kew)에 소장되어 있다는 점이다.⁷⁾ 해당 작전기록에 기반한다면 6·25전쟁기 반공 유격부대가 유엔해군과의 관계 속에서 담당할 역할과 그 성과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해군의 작전기록을 바탕으로 6·25전쟁기 반공 유격부대의 활동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그 중요성과 무관하게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한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일면을 영국군의 시각에 입각하여 조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영국해군이 서해전역에서 봉쇄작전을 담당했던 초기 1년 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반공 유격부대와 협력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두 집단 간의 협력관계가 어떻게 변화 및 발전되어 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해 유엔해군과 반공 유격부대 간의 협력관계가 1950년 12월에 처음으로 시작되어 이듬해 7월에 이르러 안정화되었기에, 두 조직 간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 개전 초기 1년간의 변화상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반공 유격부대의 존재와 활동이 6·25전쟁 유엔해군의 서해전역 해상작전 수행에 변화와 발전을 불러온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7)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김인승, 앞의 논문, 394~395쪽.

2. 영국해군의 서해 해상봉쇄 시작과 작전 운영상의 한계

제2차대전 종료 직후, 영국에 있어 한반도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은(small)”, 그래서 이곳에서 발생한 성가신 문제들은 “미국인들이 처리하도록(the Americans to play the hands) 미뤄야 할” 지역이었다.⁸⁾ 전후 대규모 군축을 감행하고 있던 영국은 북회귀선(Tropic of Cancer) 이남에 위치한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에만 자국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결정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관심을 거두기 시작했던 것이다.⁹⁾ 특히 1948년 중반 이후, 영국의 식민통치에 저항하기 위한 무장투쟁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반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영국의 무관심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¹⁰⁾

이처럼 영국이 한반도를 자국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곳으로 인식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영국의 정보수집 능력 역시 급격히 약화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1950년도 초반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요청으로 일본에 파견하였던 영국군 소속 점령군(Occupation Force) 병력 역시 완전히 철수함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 유의미한 영국군 조직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¹¹⁾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8) FO 371/46468, “Future of Korea”, TERMINAL Conference: papers and minutes of San Francisco, July 1945.

9) Kibata Yoichi, “Commonwealth Cooperation and Rivalry”, in Ian Nish (ed.), *The British Commonwealth and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1945–1952*(Leiden: Brill, 2013), p. 165.

10) Christian P. Alcock, “Britain and the Korean War, 1950–1953”, (PhD Thesis,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1986), p. 42.

11) ADM 234/385,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53*(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1967), p. 9.

6·25전쟁 발발 이후 한반도 내부 상황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전적으로 미군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했다. 실제 1950년 6월 27일 보고된 영국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영국은 한반도 전황에 대한 기초 정보조차 전적으로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의 정보참모부(G-2)에 의존해야 했으며, 미군으로부터의 정보가 없다면 “사실상 언론(press)에 소개된 것 이상은 알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것이다.¹²⁾ 그리고 이러한 영국의 정보력 부재는 이후 6·25전쟁 참전을 위해 한반도로 전개한 영국군의 작전 운영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한반도에 파병된 영국군 전력 중 개전 초기 작전지역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로 누구보다 큰 곤란함을 겪었던 존재가 바로 해군이였다. 이들이 6월 27일 단행된 영국 정부의 파병 결정 이후 한반도에 최초 전개한 전력이었기 때문이다. 영국해군의 한반도 파견은 참전 결정으로부터 이틀 후인 6월 29일 이루어졌다. “일본 인근 해상에 위치한 영국해군 전력을 한국에서의 작전수행을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조직된 미국 해군 사령관 예하로 편입(place)하라”는 해군성(Admiralty)의 명령에 따라, 영국 극동군사기지(Far East Station) 소속 전력을 한반도로 급파하게 된 것이다.¹³⁾

영국군 전력 중 해군이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파병된 이유는 단순하였다. 극동군사기지가 영국의 해외 주둔부대 중 물리적으로 한반도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6·25전쟁 개전 직전 영국 극동해군 부사령관(Second-in-Command)이었던 앤드류스 제독(Rear-Admiral William G. Andrewes)은 배수량 13,000톤급의 경항공모함인 트라이엄프함(HMS Triumph)을 비롯해

12) DEFE 11/193, “MOD DEF 462 to BJSM”, Washington of 271815A June 1950.

13) DEFE 11/193, “Admiralty signal to CINC FE Station of 281720A”, June 1950.

총 10여 척의 군함을 이끌고 홍콩과 싱가포르의 폭염을 피해 이미 일본 근해로 북상해 있던 상황이었다.¹⁴⁾ 자연스럽게 이들 영국해군 전단의 한반도 참전이 가장 빨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영국 해군성의 6월 29일자 명령에 따라 앤드류스 제독이 이끄는 영국해군 전력은 즉각적으로 미 극동해군사령관(Commander, Naval Forces Far East) 조이 제독(Vice-Admiral C. Turner Joy)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당시 영국해군 지휘부는 한반도의 낮은 작전환경에서 미 해군과 함께한 첫 1주일 간의 해상작전 결과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앤드류스 제독이 그의 보고서에 언급하였듯 “이미 이들[미 해군]과 지난 3월에 수차례 유사한 훈련을 실시하여 모든 것이 익숙(familiar)”했기 때문이었다.¹⁵⁾ 하지만 이들이 7월 초부터 미 해군과 분리되어 서해 전역에 대한 해상봉쇄 임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작전지역에 대한 정보부족’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 해상에 대한 봉쇄작전은 북한군이 해상을 통해 병력 및 물자를 수송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미 해군참모총장 셔먼 제독(Admiral Forrest P. Sherman)에 의해 추진되었다. 유엔해군이 압도적인 해군력을 바탕으로 조기에 달성하였던 해양통제(Control of the Seas)의 이점을 살려 북한군을 바다로부터 압박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결과 북위 37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 해역을 크게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이들 중 서해 이북지역에

14) 당시 앤드류스 제독과 함께 일본 근해에 위치해 있던 함정은 경항모 1척, 순양함 2척(HMS *Belfast*, *Jamaica*), 구축함 2척(HMS *Cossack*, *Consort*), 프리깃함 3척(HMS *Black Swan*, *Alacrity*, *Hart*), 그리고 병원선 1척(HM Hospital Ship *Maine*) 등이었다. ADM 234/385,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53*, p. 10.

15) ADM 116/5794, “Korean War—Second Report of Proceedings, 1 to 5 July 1950”, Office of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10 July 1950, para. 13.

대한 해상봉쇄 책임을 영국 해군에게 부여할 것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7월 3일부로 앤드류스 제독의 지휘하에 제96.8기동전대(Task Group 96.8)라 명명된 이들 유엔해군 전력은, 영국해군을 주축으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the British Commonwealth) 소속 해군을 포함하는 다국적군 형태로 구성되기에 이르렀다.¹⁶⁾ 그리고 7월 9일, 벨파스트함(HMS Belfast)에 탑승한 앤드류스 제독이 예하의 함정들과 함께 서해전역으로 출항함에 따라 이들의 해상봉쇄작전 역시 본격화되었다.¹⁷⁾

하지만, “북한이 점령한 해역에 대한 봉쇄를 강제(enforcement)”한다는 제96.8기동전대의 야심찬 목표는 작전 초기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¹⁸⁾ 서해의 낮은 작전환경과 봉쇄구역에 대한 작전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해상봉쇄를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영국군은 한반도 내에 별도의 정보조직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작전 정보를 미군에 의존해야 했다. 문제는 당시 미 해군조차 서해 기동전대의 작전구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앤드류스 제독 예하의 해군전력은 작전 초기 서해에 대한 해도(海圖)조차 지급받지 못한 채 “독자적 능력(own ingenuity and resourcefulness)에 의존”해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다.¹⁹⁾ 또한 봉쇄지역 내 북한군 활동

16) 1950년 7월 3일 이후 북위 37도선 이남 해역의 경우 한국해군을 중심으로 한 제 96.7기동전대(Task Group 96.7)가, 북위 37도선 동북해역의 경우 미 해군 중심의 제96.5기동전대(Task Group 96.5)가 작전을 담당하였다. Thomas J. Cutler, “Sea Power and Defense of the Pusan Pocket, June–September 1950”, Edward J. Marolda (ed.), *The U.S. Navy in the Korean War*(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2007), p. 22.

17) ADM 234/385,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53*, pp. 22~23.

18)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London: HMSO, 1990), p. 70.

19) ADM 1/27269, “Report of Experience in Korean Operations, July–December 1950”, Part III–Operational, Section Seven–Intelligence, para. 6.

정보 역시 정찰과정에서 마주한 어부나 인근 도서 거주민을 통해 획득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영국 해군함정에 동승하였던 한국인 통역관의 능력에 따라 서해 기동전대 전체의 정보력이 좌우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했던 것이다.²⁰⁾

문제는 이러한 정보 부족이 유엔해군의 임무수행에 큰 방해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었다. 당시 앤드류스 제독을 비롯한 영국해군 지휘부는 서해 주요 도서 내 북한군의 주둔 여부 및 이들의 무장상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해상초계 중 갑작스레 북한군의 공격에 직면하는 상황을 종종 경험해야 했다. 실제 서해 기동전대 지휘부가 7월 12일에 이르러 백령도에 상당한 전력의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들이 해군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해안포(shore batteries)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계기도, 인근을 항행하던 영국군 소속 구축함(HMS Cossack)이 백령도로부터 포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²¹⁾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해상작전의 위험성을 급격히 높여 유엔해군의 작전을 소극적으로 변모시켰을 뿐 아니라, 서해전역에 대한 해상봉쇄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저해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작전구역 내 정보획득 체계의 부재’는 앤드류스 제독 및 그 예하 지휘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해전역에 대한 체계적인 작전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정보수집 임무를 전담해줄 별도의 조직이 요구되는데, 당시 영국군에겐 그럴만한 인력과 조직이

20) 실제 코삭함의 한 영국인 장교는 “적절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한국인의 동승이 우리의 정보수집 능력을 5배(fivefold) 가량 증가시킨다”는 말로 그들의 처참한 정보수집 능력을 묘사하였다.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 p. 70.

21) ADM 116/5794, “Korean War—Fourth Report of Proceedings—Blockade of the West Coast of Korea”, Office of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21 July 1950, para. 15.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긴박했던 지상의 전황을 파악하기에도 벽차 보였던 맥아더의 정보 참모들에게 서해 기동전대를 위한 특별한 정보지원을 기대하는 것도 요원해 보였다. 따라서 앤드류스 제독은 최소한 미 극동해군사령부를 중심으로 각 부대가 해군작전과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신속히 취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아래에서 언급하고 있듯, 당시 유엔해군 내에는 이러한 시스템조차 부재하였다.

유엔해군은 각기 기동부대(Task Forces)와 기동전대(Task Groups)로 조직되어 모두가 전적으로 사세보(Sasebo)항을 기반으로 작전을 수행한다. 이들 해군 단위부대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정보조직(Intelligence Organisations)을 갖추고 있으며 전적으로 자신들의 정보자원(resources)에 의존해 작전을 수행한다. ... 이들은 [획득 정보를] 교류할 지역적 거점 부서(central department)를 갖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 정보센터의 부족 문제는 익히 절감하고 있던 바이며, [심지어] 기동부대나 기동부대 외부로부터 해상작전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항해 시작 전에 브리핑 받을 수조차 없다.²²⁾

결론적으로 서해 기동전대가 직면하였던 정보 관련 문제들은 그 어떠한 변화나 개선 없이 1950년 말까지 지속되었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뒤이은 북진, 동년 10월 말 중국군의 참전과 이에 따른 38도선 이남으로의 후퇴 과정 중에도 여전히 서해전역 내 유엔해군은 작전 정보를 제공할 유의미한 정보조직을 보유하지 못했으며, 극동해군사령부 예하의 다양한 해군전력 간에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 역시 구축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서해전역이 유엔 지휘부에게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

22) ADM 1/27269, "Report of Experience in Korean Operations, July-December 1950, PartIII-Operational", Section Seven-Intelligence, paras. 2~3.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²³⁾ 그리고 1950년 9월 12일부로 그 명칭이 제95.1기동전대(Task Group 95.1)로 변경된 앤드류스 제독의 유엔해군 전력은, 지속된 정보 부족 상황 속에서 느슨하고 비효과적인 형태의 봉쇄작전을 지속해야 했다.

3. 반공 무장집단의 등장과 한국해군을 통한 초기 해상 협력관계의 형성

가. 서해전역 내 반공 무장집단의 등장과 유엔해군과의 초기 관계

영국해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서해 기동전대의 작전은 12월 말, 남진하는 공산군을 피해 서해상의 크고 작은 도서로 피난한 북한 출신 반공 무장집단의 등장을 계기로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다. 이들 무장집단의 활동은 1945년 해방 이후 북한 사회 내에 등장한 자생적인 반공주의 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북한이 소련 군정하에서 급속히 공산화되기 시작하자, 이에 반발하던 학생 및 기독교인, 그리고 우익인사들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 내 반공주의자들의 저항은 초기의 단순한 집회와 시위 등의 형태를 넘어 지역 인민위원회 건물에 대한 방화 및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 행위로까지 확대될 정도였다.²⁴⁾

23) 인천상륙과 진남포 철수 같은 단발성 작전들만이 한시적으로 주목받았을 뿐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것. 김인승, 「한국전쟁기 서해 도서공방전(島嶼攻防戰)의 발발 : 공산군의 대화도 공격을 중심으로」, 『韓國軍事學論集』 第75輯 第1卷, 2019, 159~161쪽.

24)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39~42쪽; 김학준, 『미소냉전과 소련 군정 아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1946년 1월-1948년 9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8), 185~195쪽.

하지만 북한 측의 철저한 감시와 검열로 인해 이들 반공주의자들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큰 제약과 탄압을 받아야 했다. 그 결과 6·25 전쟁 초반까지 이들의 활동은 그 세를 확대하지 못한 채 음지에서 점조직 형태로 그 명맥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²⁵⁾

북한 내 반공주의 운동의 전환점은 9월 중순의 인천상륙작전과 10월 말의 중국군 참전을 거치며 발생하였다. 급격한 전선의 이동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 관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대다수 반공주의자들이 더 이상 북한 내에 적(籍)을 두고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10월의 북진 과정에서 유엔군이 잠시 북한지역을 점령하였을 때, 지역 내 반공주의자들이 유엔군과 협력하에 각 마을의 치안대 역할을 자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가 주변에 공개되었을 뿐 아니라 공산주의자들과 씻을 수 없는 원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²⁶⁾ 문제는 10월 말 시작된 중국군의 공세에 밀려 유엔군이 후퇴함에 따라, 불과 2개월여 만에 북한 지역 대부분이 공산군에 의해 재탈환 되었다는 점이었다. 무장과 전력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공산군의 위협에 직면한 반공주의자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북한 내 반공주의자들에게 남아 있던 대안은 제한적이었다. ‘유엔군을 따라 월남’하거나, ‘인근의 안전지역으로 이동한 후 유엔

25) 북한에 남아 있던 반공조직의 투쟁방식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U.S. Army Forces, Far East, 8086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p. 80, 110; 조성훈, 앞의 책, 44쪽.

26) 공산 측과 반공주의자 모두는 북한지역의 점령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잔인한 학살을 자행하였다. 그 결과 이들 간에는 해결할 수 없는 원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공산 측이 후퇴 과정에서 자행한 반공주의자들에 대한 학살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자를 참고할 것. 김행복, 「북한군의 양민학살에 관한 연구」, 조성훈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322~339쪽; 반공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에 대해 자행한 학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Report on US Crimes in Korea", (31 March 1952);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57화-망각의 전쟁, 황해도 신천 사건」, (2002년 4월 21일 방송분).

군의 반격을 기다리며 무장투쟁을 지속'한다는 양자택일 식의 선택만이 가능했기 때문이다.²⁷⁾ 중국군의 급격한 남진으로 퇴로가 단절되었던 북한 동부지역에서는 해로를 통한 집단피난이 이루어졌다. 애초에 함경도 지역이 북한 내 반공주의 운동의 세가 크지 않았던 곳이었기에, 북한에 남아 조직적인 투쟁을 지속할 것을 택한 인물은 드물었다.²⁸⁾ 반면 북한 내 반동주의 운동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황해도와 평안도의 경우, 수천 명에 이르는 반공주의자들이 고향 땅 해방을 위해 무장투쟁을 지속할 것을 결심하며, 거주지에서 가까운 서해 도서로 거점을 이동했다.²⁹⁾ 일단 황해도 남부 및 용진반도 인근에 거주하던 인물들은 순위도와 연평도, 용매도 등지로, 신천, 은률과 같이 황해도 중·북부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백령도나 초도 및 그 인근 도서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평안남도 해안 인근에서 거주하던 이들은 초도와 석도 등지로, 평안북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대화도, 소화도 등 철산반도 이남에 위치한 도서로 피난하였다.³⁰⁾

당시 본토에서 서해 도서로 급작스레 이주한 인원 중에는 반공주의 무장조직뿐만 아니라 미처 육로로 대피하지 못한 피난민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 중 자체적으로 바닷길을 건널 방안을 확보하지 못한 자들이 해안가에 집결해 있을 때, 이들의 해상이동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 존재가 바로 서해전역에서 봉쇄작전을 수행 중

27) 조성훈, 앞의 책, 48~49쪽.

28) 이와 함께 동해안에 안전지대(sanctuary)로 삼을만한 도서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이 지역 내 반공운동가들의 무장투쟁 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로 인 해 동해에서의 반공 유격부대의 활동은 서해에 비해 그 규모도 훨씬 작았으며, 작전성과도 미미하였다. Frederick Cleaver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p. 39.

29) 당시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존재하던 반공 유격부대의 인원은 명확하지 않다.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의 보고서는 1950년 말을 기준으로 이들의 규모를 6,000-10,000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Ibid., p. 1.

30) 조성훈, 앞의 책, 251, 279, 289, 307, 310쪽; Ed Evanhoe, *Dark Moon: Eight Army Special Operations in the Korean War*(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1995), p. 42.

이던 한국해군이였다. 당시 해주 및 진남포 인근에는 박옥규 대령과 최효용 중령이 이끄는 총 12척의 초계함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수심이 얕은 근해지역 정찰을 위해 앤드류스 제독의 요청에 따라 7월 말부터 서해 기동전대에 파견된 전력이었다. 그리고 한국해군 함정의 적극적인 피난민 구출작전 결과로 1950년 말부터 이듬해 초순까지 총 62,082명에 이르는 인원들이 서해에 위치한 크고 작은 도서로 이주할 수 있었다.³¹⁾

당시 한국해군은 각 지역의 반공 무장조직원들과 연계하여 구출작전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95.1기동전대 지휘부에 이들 비정규 무장조직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서해 기동전대 지휘부 중 반공 무장조직의 존재에 대해 최초로 흥미를 보인 인물은 실론함(HMS Ceylon)의 함장 로이드-데이비스(C.F.J. Lloyd-Davies)였다. 서해전역 봉쇄작전에 대한 현장지휘는 통상 사세보함에 체류하던 앤드류스 제독 대신 그 예하의 제95.12기동단대장(Commander, Task Element 95.12)이 담당하였는데,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은 12월 4일부터 2주간 서해전역에 체류하며 봉쇄작전을 지휘하였다. 이 시기는 반공 무장조직 및 피난민들이 본격적으로 서해 도서로의 철수를 시작하던 때였다. 당시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은 서해전역에 당도한 직후 PF-61함의 함장인 최효용 중령과 만나 피난민 관련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최 중령으로부터 작전지역 내 공산군의 위치와 규모 등을 포함하는 매우 상세한 정보를 듣게 되었다. 피난민 구출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공 무장조직원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영국군 함장에게 전달했던 것이다.³²⁾

3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저작을 참고할 것.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 작전』, (계룡: 해군본부, 2012), 381~387쪽.

32) ADM 116/6213, "HMS Ceylon-Report of Proceedings from 4 to 18 December 1950", HMS Ceylon, 23 December 1950, para. 9; 한국해군이 반공 무장대원들

당시 최 중령으로부터 전달받았던 작전 정보가 “이전까지는 획득이 불가능 했던(previously unavailable)” 고가치 정보였기에,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은 해당 정보의 출처와 이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최 중령에게 한국해군 장교 1명을 정보담당(Intelligence Officer)으로 임명하고, 그를 반공 무장대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도록 하여 가능한 한 많은 작전 정보를 수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³³⁾

이후부터 한국해군은 일부 반공 무장조직과 영국 해군지휘부 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작전지역 내 북한군 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당시 한국해군 함정이 접촉 가능했던 반공 무장대원의 숫자가 제한적이었고 그 빈도마저도 불규칙적이었지만, 그간 정보부족 문제로 고심하던 서해 기동전대 지휘부에게 있어 이들 존재의 등장은 실로 가뭄에 단비와 같았다. 실제 12월 18일 로이드-데이비스 함장과 교대한 케냐함(HMS Kenya)의 브록 함장(Captain P. W. Brock)의 경우 제95.12기동단대장 임무기간 중 최 중령을 4차례나 방문해 공산군의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청취하였다.³⁴⁾

흥미로운 점은 당시 영국해군 지휘관들은 서해전역 내 반공 무장 집단의 등장과 이들이 제공한 정보에는 큰 관심을 표명했으나, 이들과의 관계를 보다 심화하는 것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적어도 이듬해 1월 말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서해전역 내 무장한 비정규집단의 등장에 큰 흥미

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U.S. Army Forces, Far East, 8086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Supporting Document, pp. 1~30.

33) ADM 116/6213, “HMS *Ceylon*—Report of Proceedings from 4 to 18 December 1950”, para. 9.

34) ADM 116/6218, “HMS *Kenya*—Report of Proceedings from 1 to 31 December 1950”, HMS *Kenya*, 1 January 1951, Appendix I.

를 보였던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이 3척의 함정을 이끌고 12월 말부터 진행되었던 인천지역 해상철수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남하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브록 함장이 제95.12기동단대장 임무를 수행할 때 그 예하에는 한국해군을 제외하고 두 척의 소형 함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서해 봉쇄작전을 담당하던 전력의 급격한 감축과 이로 인해 업무량 폭증으로 브록 함장이 반공 무장집단의 등장에 추가적인 관심을 쏟을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³⁵⁾

하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갑작스레 등장한 북한 출신의 무장조직에 대해 협력 대상으로서 신뢰를 담보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실제 12월 29일, 최 중령은 브록 함장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내 이들 무장조직의 활동을 서해 유엔해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평양 남쪽과 서쪽, 그리고 해주 동쪽 지역 전체에는 2,000여 명에 이르는 북한인 출신 저항군(The North Korean Strugglers Army)이 존재한다. 이들에게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이 지원된다면 [우리는] 이들을 한국해군의 동조자(sympathizers)로 획득할 수 있다.³⁶⁾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 대해 브록 함장은 “이들 북한 출신 무장집단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자들인지(in the right hands) 확신할 수 없다”며 최 중령의 지원요청을 단호히 거부하였다.³⁷⁾ 브록 함장에게 있어 그 출신 및 목적이 모호한, 심지어 믿을만한 유엔군 조직에 의해 통제되지도 않는 비정규군 집단과의 협력은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는 1월 15일, 북한에

35) ADM 234/385,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53*, pp. 109~112.

36) ADM 116/6218, “HMS *Kenya*—Report of Proceedings from 1 to 31 December 1950”, Appendix II.

37) Ibid.,

있는 반공 무장집단과 피난민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기동전대가 보유한 소형 보트를 대여해 줄것을 요청해온 최 중령에게 “장차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물건을(hostages in fortune) 그 기간이 불확실하고 가치조차 의문스러운(doubtful value) 작전을 위해 빌려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차 거절 의사를 표명하였다.³⁸⁾

제95.1기동전대장 앤드류스 제독 역시 이러한 브록 함장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일단 그 역시 정보조직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보이는 반공 무장집단의 등장에 대해서는 흥미를 보였다. 그리고 이들을 해군작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실제 앤드류스 제독은 1월 19일 브록 함장에게 긴급 전문을 보내 반공 무장대원들이 해주와 옹진지역 사이를 연결하는 북한 철도가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 가능한지 확인해 줄 것을 문의하기도 하였다.³⁹⁾ 하지만 이 영국해군 제독 역시 유엔군 조직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심지어 그 출신이 불분명한 비정규군과 직접적인 협력관계를 맺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보았다. 오히려 그는 작전지역 내 갑자기 등장한 반공 무장집단의 활동에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유엔해군에 그 어떠한 사전 협조 없이 작은 선박을 타고 도서와 북한 본토 사이를 오가는 반공 무장집단의 활동으로 인해, 서해 해상봉쇄 작전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앤드류스 제독의 인식은 그가 1951년 1월 중순의 서해전역의 작전상황을 기록한 다음 보고서에

38) ADM 116/6218, “HMS *Kenya*—Report of Proceedings from 1 to 27 January 1951”, HMS *Kenya*, 1 January 1951, Appendix I.

39) 당시 브록 함장은 한국해군 소속 PC 704함의 함장에게 앤드류스 제독의 요청사항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PC 704 함장은 “자신은 황해도 남쪽에 위치한 반공 무장조직과 접촉하지 않고 있다”며 앤드류스의 질문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하였다. ADM 1/22521, “Korean War Reports of Proceedings No.30 at Sasebo”, 17 January and 6 February 1951,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s letter FO2FE/2960/11, dated 10 March 1951.

잘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 서해에 내게 알려지지 않은 선박과 소규모 조직들의 움직임이 다수 확인되었다. ... [우리가] 서해 지역 내 작은 선박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도, 그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friend or foe)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워 보인다.⁴⁰⁾

이처럼 앤드류스 제독을 비롯한 영국해군 지휘부는 그들의 작전 구역 내에 갑작스레 등장한 무장집단의 존재에 대해 관심은 나타냈으나, 이들과 보다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함을 보였다.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심지어 그 누구에 의해서도 통제받지 않는 집단과의 협력은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인천 인근의 해상작전과 지상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절반에 가까운 함정이 해상 봉쇄작전으로부터 이탈한 것 역시 이들과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적어도 집축 초기, 반공 무장집단에 대한 제95.1기동전대 지휘부의 인식은 ‘정보수집에 있어 높은 잠재적 가치를 지닌, 하지만 믿고 협력할 수는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나. 한국해군에 의한 반공 유격부대 조직화와 해상 협력관계의 변화

적어도 1951년 초반까지 서해 도서로 피난하였던 반공 무장조직들은 유격부대(Partisan Forces)라 칭하기에 여러모로 부족함이 존재하였다. ‘공산주의에 대항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조직된 비정규 무장집단’이라는 성격은 동일하였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이들 대부분이 유엔군에 의한 지휘 및 통제를 받지 않고 자체계획에 따라 자

40) Ibid., p. 5.

유분방하게 활동했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 해군지휘부 역시 이들을 “북한인 저항군(the North Korean Strugglers Army)”이나 “무장 비정규군(Armed Irregulars)” 등으로 호칭할 수밖에 없었다.⁴¹⁾ 하지만 1951년 1월 중순부터 이들의 조직 및 활동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백령도를 중심으로 일부 반공 무장집단을 유엔군 산하의 유격부대로 조직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처음 백령도에 산재해 있던 이들을 결집하고 조직화한 것은 한국해군이였다.

중국군의 급격한 남진으로 이미 진남포 철수가 완료된 데 이어 인천으로부터의 추가 해상철수 작전이 검토되던 1950년 12월 중순, 유엔 해군지휘부는 제95.1기동전대의 작전구역 내에 위치한 도서 중 유엔 측이 지속 점령해야 할 곳으로 초도, 백령도, 대청도, 덕적도 등의 4개 도서를 선정하였다. 서해전역 내 공산 측의 기뢰부설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소 이들 도서에 대한 점령이 필수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⁴²⁾ 당시 앤드류스 제독은 조이 제독에게 이들 4개 도서에 대한 점령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 위한 방어병력의 파견도 함께 요청하였는데, 조이 제독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부산에서 훈련 중이던 한국 해병대의 서해 도서 파병이 결정되었다.⁴³⁾ 그리고 1월 17일에 이들의 훈련이 종료됨에 따라, 동월 20일, 백령도와 덕적도에 우선적으로 각각 1개 중대 규모의 해병대 병력이 파견되기에 이르렀다.⁴⁴⁾

41) ADM 116/6218, “HMS *Kenya*—Report of Proceedings from 1 to 31 December 1950”, Appendix II.

42) 김인승, 「한국전쟁 해전사(海戰史) 연구자료의 발굴과 그 효용성」, 161쪽.

43) ADM 234/385,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53*, pp. 112~113.

44) ADM 116/5794, “Korean War Reports of Proceedings No. 29 at Sasebo”, 6 January and 17 January 1951,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s letter FO2FE/2960/11, 18 February 1951, p. 13.

당시 한국 해군본부에서는 이희정 중령을 백령도 주둔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몇 가지 임무를 부여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임무는 물론 “백령도에 수용된 피난민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도서 내 산재한 반공 무장대원들을 결집하고 이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켜 인근 도서의 방어와 함께 황해도 연안에 상륙을 감행하여 유격활동과 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하도록”하는 것 역시 추가 임무로 부여하였다.⁴⁵⁾ 이에 이 중령은 백령도 상륙 직후 도서 내 존재하는 반공 무장대원들과 접촉하는 한편, 이들 중 일부를 모아 제식훈련과 사격술, 통신기 조작법 등의 기초훈련을 시킨 후 30~50명 단위의 소규모 유격부대로 재조직화하였다.⁴⁶⁾

당시 한국해군이 조직한 반공 유격부대는 백령도 내에 거주하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그 규모 역시 수백 명 수준에 불과하였다. 1951년 초, 서해전역 내 존재하던 반공 무장집단의 규모가 대략 6천에서 최대 1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었음을 고려하면, 한국해군에 의해 조직된 유격부대의 규모는 실로 미미하였던 것이다.⁴⁷⁾ 그럼에도 유엔군 조직에 의해 통제 및 운영되는 유격부대의 등장은 분명 제95.1기동전대 지휘부가 큰 관심을 보일 만한 사안이었다. 애초에 영국 해군지휘부가 비정규 무장집단과의 협력관계를 심화하는데 소극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신뢰의 부재’였는데, 이들이 한국해군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영국해군 지휘부는 백령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공 유격부대의 조직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백령도 방어부대의 파견을 유엔 해군지휘부에 요청하였던 주체가 바로 앤드류스 제독이었기에, 해병부대의 전개 사실과 함께 “한국해군이 도서 내 다수의

45) 해군본부, 앞의 책, 388쪽.

46) 해군본부, 위의 책.

47) Frederick Cleaver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p. 39.

청년집단(large parties of young men)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 역시 지속적으로 전달받고 있었던 것이다.⁴⁸⁾ 특히 한국해군이 반공 유격부대원들을 단순한 정보수집 목적뿐 아니라 도서방어와 상륙공격 부대로 활용하기 위해 훈련 시키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 간 인식하지 못했던 반공 유격부대의 새로운 가치와 유용성에 눈을 뜨게 되었다. 당시 서해 이북에 위치한 해안지대에는 상륙에 유리한 지점이 다수 존재했던 반면, 공산군의 방어태세는 취약하여 서해 도서로부터 침투작전을 펴기에 용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유엔해군으로부터의 지원이 뒤따른다면 유격부대가 다양한 형태의 게릴라 작전을 통해 공산 측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⁴⁹⁾

영국해군 지휘부 중 한국해군에 의해 재조직되었던 반공 유격부대의 다양한 가치와 유용성을 인식하고 가장 먼저 협력관계 개선에 앞장섰던 존재는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이었다. 12월 말 인천을 지원하기 위해 봉쇄작전에서 이탈하였던 그가, 2월 초순 이후 지상의 전황이 안정되기 시작하자 예하 전력과 함께 제95.12기동단대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그의 복귀와 함께 서해 해상봉쇄전력 운영이 다시금 안정되기 시작하자, 본래 반공 무장집단의 활동에 큰 흥미를 보였던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의 주도하에 한국해군이 조직화한 반공 유격부대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작전이 구상되기 시작한 것이다.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의 새로운 시도는 그가 서해전역 내 봉쇄작전을 담당했던 2월 13일부터 동월 24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가장 먼저 시도했던 작전은 반공 유격부대와 유엔해군

48) ADM 116/5794, “Korean War Reports of Proceedings No. 29 at Sasebo”, 6 January and 17 January 1951, p. 12.

49) ADM 116/6211, “HMS *Belfast*—Report of Proceedings 22 February to 6 March 1951”, HMS *Belfast*, 6 March 1951, p. 5.

간 협력을 통해 본토에 위치한 소규모 북한군 부대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실제 그는 150명 가량의 유격부대원들을 북한군 해안방어 부대가 위치한 지역에 상륙시켜 북한군을 생포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실론함을 비롯한 3척의 군함이 상륙부대를 함포로 지원하고, 필요시 영국해군 소속 경항공모함인 테세우스함(HMS Theseus)의 항공지원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협조하였다.⁵⁰⁾ 물론 이 영국군 함장의 야심찬 계획은 작전당일 발생한 예상치 못한 강풍으로 실제 실행단계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하지만 유엔해군의 지원하에 유격부대원들을 활용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형태의 작전이 최초로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은 영국해군의 함포사격 수정반(Naval Gunfire Spotting Team) 운영 절차를 기준 삼아 반공 유격부대원 중 일부를 본토에 침투시켜 함포사격 결과를 관찰하고 그 위치를 수정하는 전문요원으로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는 실제 백령도 내에 한국해군이 관리하던 유격부대원 중 일부를 선발해 그 이하의 함포장교와 통신담당 장교에게 교육받도록 하였다.⁵¹⁾ 수일 간의 훈련상태를 지켜본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은 “이들이 꽤 훌륭하게 교육을 따라오고 있으며(coming along), 이를 지속할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며 그 결과에 만족감을 표했다.⁵²⁾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의 주도하에 추진되었던 일단의 변화는 유엔해군과 반공 유격부대 간의 관계발전에서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먼저 반공 유격부대와의 협력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신뢰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유엔군에 의한 유격부대원들의 관리 및 통제가 필수적임을 재확인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50) ADM 116/6213, “HMS *Ceylon*—Report of Proceedings from 13 to 24 February 1951”, HMS *Ceylon*, at Inchon, 27 February 1951, para. 6.

51) Ibid.,

52) Ibid., para. 7.

부분은 한국해군에 의해 통제되는 유격부대의 등장을 전후하여 영국해군 지휘부가 보인 반응의 차이를 비교하면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반공 유격부대와 긴밀한 협력으로 인해 서해 유엔해군의 작전이 충분히 공세적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1950년 7월 이래 서해전역에서 비효율적이고 수동적인 형태의 작전만을 지속하였던 영국해군이, 비로소 그들의 작전에 적극성과 공격성, 그리고 효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발견해낸 것이다.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은 열흘 남짓한 그의 작전기간 대부분을 이처럼 반공 유격부대와 협력관계를 모색하는데 투자하였다. 이들의 존재가 그간의 서해 유엔해군 작전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특히 2월 24일이 그가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마지막 날이었기에 더더욱 반공 유격부대의 활용 가능성을 시험하는 데 열중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 95.12기동단대장의 임무를 마무리한 직후, 그가 지난 10일 간 백령도를 중심으로 보고 경험한 사실을 다른 영국해군 지휘부와 공감하고자 노력하였다. 실제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은 2월 24일 서해전역에서 봉쇄작전을 마치고 일본으로 복귀하며 향후 반공 유격부대의 활동의 유용성과 함께 제95.1기동전대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사세보항에 도착한 직후인 2월 27일, 앤드류스 제독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a. 백령도에 대한 즉각적인 무기 및 실탄 공급이 필요함. 백령도에만 [반공 유격부대원외로] 모집 가능한 인원이 4천명 가량이 있으며, 공산군이 도서에 대한 상륙공격을 시도할 시 이들을 방어 병력으로 사용할 수 있음.
- b. [...]

- c. 소형 상륙용 주정(LCM) 또는 다른 형태의 상륙함(landing craft) 지원이 필요함. 이 함정은 백령도 내에 주둔하는 한국해군에 의해 관리될 것이며 북한 본토에 대한 습격(raid) 시 사용할 것임.
- d. [백령도에서] 유격부대원들과 함께 머물며 이들과 제95.12기동단대 간 상시 연락책(permanent link)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영국인 혹은 미국인 연락장교(liaison officer)의 파견이 필요함.
- e. 한국해군과 유격부대, 쇼란(Shoran) 기지와 제95.12기동단대를 연결하는 통신수단이 필요함.
- f. 야간에 기동단대에서 제공한 통신장비를 소지하고 본토에 침투해서 [유엔해군과의] 합동작전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게릴라 폭격 및 정찰팀(guerrilla bombardment and reconnaissance team)의 훈련이 필요함.⁵³⁾

위 보고서에는 반공 유격부대를 통한 정보수집뿐 아니라 이들을 도서방어 병력 및 함포사격 수정반, 그리고 상륙공격부대로 활용하려는 야심찬 계획이 담겨있었다. 대부분이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이 마지막 기동단대장 임무 기간에 직접 그 가능성을 확인한 작전들이었다. 그는 이러한 작전수행을 위해 이전까지는 지원이 거부되었던 무기과 탄약, 상륙함뿐 아니라, 유격부대와 서해 유엔해군과의 긴밀한 연락을 위한 통신체계 구축과 연락장교 파견의 필요성까지 주장하였다. 그리고 앤드류스 제독을 비롯한 서해 기동전대 지휘부가 그 지원의 주체가 되어주길 희망하였다.

실제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이 마지막 10일간의 임무기간 동안 백령도를 중심으로 보였던 반공 유격부대와의 협력 가능성은 여타 영국해군 함장들로부터도 깊은 공감을 얻어 내었다. 로이드-데이비스로부터 제95.12기동단대장 임무를 넘겨받은 벨파스트 함의 클레이-포드(Sir Aubery St. Clair-Ford) 함장은, “이들의 활동을 막기

53) Ibid., para. 6.

위해서는 적군의 대규모 병력과 무장을 이 지역[서해]으로 투입하는 등의 중대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라며 반공 유격부대의 활동이 보일 결과에 기대감을 나타내었다.⁵⁴⁾ 당초 반공 무장집단을 지원해 달라는 한국해군의 요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브룩 함장조차도 3월 초, 제95.12기동단대장 임무를 수행한 후, “이들이 적절한 훈련과 작전계획, 그리고 보급지원을 받게 된다면 서해에 위치한 적군에게 최소한 따끔한 일침(more than a pinprick)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로이드-데이비스의 구상에 깊은 공감을 표하였다.⁵⁵⁾

하지만 영국해군 지휘부 내에 형성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앤드류스 제독은 유격부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당시 앤드류스 제독 역시 반공 유격부대의 가치와 활용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이들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문제에 서해 기동전대가 직접 개입하는 것에는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2월 초부터 미8군 사령부가 이들을 예하의 유격부대원으로 재조직화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음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유격부대를 직접 지원하는 업무에 굳이 그의 기동전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당시까지 앤드류스 제독은 ‘유격부대를 지원하는 작업은 미8군에게 맡기고, 서해 기동전대는 그 변화과정을 면밀히 지켜보자’는 신중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⁵⁶⁾

이와 같은 앤드류스 제독의 방침에 따라 제95.1기동전대는 반공 유격부대에 대한 지원 및 조직화 이슈에 대해 철저히 관찰자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적어도 백령도를 중심으로 미8군이 주도

54) ADM 116/6211, “HMS *Belfast*—Report of Proceedings 22 February to 6 March 1951”, HMS *Belfast*, 31 March 1951, p. 5.

55) ADM 116/6218, “HMS *Kenya*—Report of Proceedings 1 February to 14 March 1951”, HMS *Kenya*, 5 April 1951, para. 5.

56) Ibid., CTG 95.1’s Comments, 5 April 1951.

하는 변화가 결실을 보이기 시작한 3월 초반까지, 한국해군의 영향력 하에 있던 반공 유격부대를 중심으로 소규모적인,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협력만을 지속해갔다.

4. 레오파드 조직의 등장과 해상 협력체계의 구축

가. 레오파드 조직의 등장과 반공 유격부대의 재조직화

1951년 1월 8일, 제95.7기동전대(Task Group 95.7)로부터 미8군사령부에 황해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반공 무장집단의 활동 정보와 함께 이들에 대한 무장지원을 요청하는 전문이 도착하였다. 12월 29일, 브록 함장이 최 중령의 반공 무장집단 지원요청을 거절한 후, 유사한 형태의 요청이 당시 한국해군 지휘부가 소속된 제95.7기동전대를 경유해 미8군으로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⁵⁷⁾ 그리고 이 전문은 영국해군이 처음 보인 반응과는 달리, 미8군 지휘부로부터 즉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미8군사령부에 소속된 인물 중 반공 무장집단의 등장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인물은 사령부에서 정보업무를 담당하던 맥기(John G. McGee) 대령이었다. 2차대전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게릴라 작전을 경험했던 그는, 개전 직후부터 북한 출신의 피난민을 중심으로 유격부대를 조직하여 전선 후방에 재투입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후방에서의 유격작전을 통해 공산 측 병력을 분산시켜 전선에서 교전 중인 유엔 지상군의 부담을 줄여줄 목적이

57) 당시 발송된 전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U.S. Army Forces, Far East, 8086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Supporting Document, p. 71.

었다.⁵⁸⁾ 그러하기에 1월 초 미8군 사령부에 전달된 반공 무장집단에 대한 정보는 유격작전에 적합한 자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에게 있어 실로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맥기 대령이 반공 유격부대와 같은 조직의 필요성을 얼마나 절감했는지는 이후 그가 추진한 업무의 진척속도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 실제 맥기 대령은 전보를 수신한 바로 당일, 제95.7기동전대에 전문을 보내 반공 무장집단과 관련한 추가 정보 및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장의 종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5일 후인 1월 13일, 반공 무장집단을 활용한 지구전(Attrition Warfare) 계획 초안을 수립하여 극동군사령부에 보고하기까지 하였다.⁵⁹⁾ 이어 1월 15일, 극동군사령부가 그의 계획을 승인하자마자 미8군 작전참모부(G-3) 예하에 지구전과(Attrition Section)를 신설하고 서해 도서에서 활동하던 반공 무장집단을 조직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였다.⁶⁰⁾

당시 맥기 대령은 해당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할 행정관(executive officer)으로 포병장교 출신의 버크(William A. Burke) 소령을 임명하였다. 1월 말 백령도를 직접 방문하여 반공 무장집단의 규모와 존재를 확인한 버크 소령은, 이후 미8군사령부로 복귀하여 맥기 대령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백령도를 거점으로 코드명 윌리엄 에이블(WILLIAM ABLE) 사령부를 설립할 것을 승인 받았다.⁶¹⁾ 이어 맥기 대령이 작성하였던 ‘지구전 계획’을 바탕으로 1월 23일, 에이블

58) 조성훈, 앞의 책, 131~133쪽.

59) 맥기 대령이 제95.7기동전대와 주고받은 서신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U.S. Army Forces, Far East, 8086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Supporting Document, pp. 72-73; 맥기 대령이 극동군사령부에 보고한 자료는 다음을 참고할 것. Ibid., pp. 65~66.

60) Ed Evanhoe, *Dark Moon: Eight Army Special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p. 38.

61) Ibid., pp. 38~39.

계획(Plan ABLE)이라 명명되었던 반공 유격부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⁶²⁾

에이블 계획에 따르면 반공 유격부대는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었다. 1단계에서는 각 도서를 기반으로 이들을 훈련 시킨 후, 북한에 침투시켜 북한 내부에 세포조직을 양성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들을 정보수집 요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공산군에 대한 방해 공작(sabotage) 역시 병행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2단계는 유엔군의 북진을 위한 총공세와 연동하여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이때 모든 유격부대원들이 후방에서 혼란을 조장함과 동시에 유엔군의 공세에 합세하여 공산군의 후면을 공격한다는 계획이었다.⁶³⁾

1단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2월 초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맥기 대령과 버크 소령은 여러 도서에 산재해 있던 반공 무장집단을 미8군이 지원하는 유격부대로 재편성하기 위해, 다양한 무장집단의 지도부들과 직접 접촉하였다. 그리고 “미8군과 유엔군이 북한을 해방시키기 위한 또 한번의 북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고향 땅 해방을 위해 미8군 예하의 조직원으로 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⁶⁴⁾ 그 결과 2월 중순 장재화가 이끄는 신천 출신의 무장집단을 시작으로 백령도와 그 인근에서 활동하던 크고 작은 무장집단들이 속속 미8군의 통제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⁶⁵⁾ 자연스레 한국해군에 의해 조직되었던 유격부대 역시 미8군 예하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사령부 명칭을 ‘윌리엄 에이블’

62) 에이블 계획 전문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Cleaver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Appendix E., pp. 158~162.

63) Ibid., pp. 40~41.

64) John H. McGee, “McGee letter to Colonel Rod Paschall”,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Carlisle, Pennsylvania, 24 March 1986), p. 12.

65) 각 유격부대 별 레오파드사령부 합류 과정 및 일자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조성훈, 앞의 책, 제5장.

에서 레오파드(LEOPARD)로 변경한 이들 유격부대는, 그 예하 조직에 동키-1, 2, 3과 같은 부대명을 부여하고 대원들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는 한편, 3월 초부터 통신장비를 소지한 부대원을 본토로 침투시키기 시작하였다. 레오파드 조직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나. 서해 유엔해군과 레오파드 조직 간의 해상협력체계 구축 결과

서해 유엔해군과 레오파드 조직 간의 직접적인 협력관계는 3월 초, 레오파드 측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다. 에이블 계획상의 1단계 작전을 추진하기 위해 서해 유엔해군으로부터의 지원이 필수적이었기에, 레오파드 사령부가 작전을 개시한 직후 맥기 대령이 먼저 제 95.1기동전대 측에 관계자 회의를 제안한 것이다. 이에 3월 8일, 미8군 사령부 명의로 앤드류스 제독에게 “서해 해상의 아군 게릴라 활동의 지원과 관련한 회의를 위해 당신의 기동부대 예하의 영국해군 장교가 [미8군] 지휘부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전문이 발송되었다.⁶⁶⁾ 이에 대해 앤드류스 제독이 회의 시간을 3월 14일로, 그리고 회의 장소를 인천항에 정박한 벨파스트함으로 할 것을 역 제안하면서, 서해 기동전대지휘부가 고대하던 새로운 유격부대 사령부와의 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⁶⁷⁾

3월 14일 회의에는 영국해군 대표로 벨파스트 함의 클래어-포드 함장이, 그리고 미8군사령부 대표로 맥기 대령이 참여하였다. 당시 클래어-포드 함장은 맥기 대령으로부터 레오파드 부대원들의 대략적인 규모와 무장상태, 이들의 임무와 통신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 동시에 레오파드 사령부로부터의 작전 정보 공급절차와

66) U.S. Army Forces, Far East, 8086th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Supporting Document, p. 50.

67) Ibid., p. 51.

두 조직 간의 통신수단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당시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봉쇄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이 주기적으로 백령도에 정박하여 버크 소령으로부터 황해도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령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기동전대로부터 연락장교를 백령도에 파견한다. 각 도서에 배치된 라디오 장비와 함정 간의 연결 가능성 역시 고려될 것이다(will be considered).⁶⁸⁾

그리고 이러한 회의를 바탕으로 3월 말부터 제95.1기동전대와 레오파드 사령부 간의 협력관계에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뚜렷한 변화가 관찰된 부분은 유엔 해군작전을 위한 정보작전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일단 1951년 4월까지 서해상에서 활동하던 반공 무장조직의 대부분이 레오파드 사령부 예하로 편입되는 한편, 사령부와 예하 동키부대 간의 직접적인 통신수단이 구축됨에 따라 유격부대원들이 여러 지역에서 수집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버크 소령에게 집결되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여기에 더해 작전 초기 유격부대원들이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는 정보수집 관련 활동에 보다 매진함에 따라 단기간 내에 황해도 및 평안남도 서부지역 내 북한군 활동에 대한 정보공급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 결과 봉쇄작전을 수행하는 서해 유엔함정들은 레오파드 사령부라는 믿을만한 단일 창구를 통해, 서해전역 대부분을 포괄하는 북한군 활동 정보를 대량으로, 그것도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클레어-포드 함장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제95.12기동단 대장으로 근무하던 4월 16일부터 30일 사이, 레오파드 사령부로부터 60건 이상의 주요 표적 정보를 공급받았다고 한다. 이들 정보에는 북한군의 부유기뢰 설치 부대와 해안 방어부대의 집결지, 그리고

68) Ibid., pp. 50~51.

해안포 및 방공포 진지의 위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유엔해군의 봉쇄작전 수행에 큰 위협이라 할 수 있는 북한군의 활동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당시 클레어-포드 함장은 함포의 사거리 내에 위치한 표적에 대해서는 함포사격으로, 그 밖에 위치한 표적은 항공모함의 함재기가 공격하도록 하였다.⁶⁹⁾

이러한 2주간의 작전 경험 후, 클레어-포드 함장은 그의 보고서에 “가장 가치있는 정보의 공급자(source)인 이들 조직과 긴밀한 접촉을 하는 것이 필수적(essential)”이라며 레오파드 조직의 정보수집 능력에 감탄을 표하였다.⁷⁰⁾ 마찬가지로 유격부대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함재기의 폭격을 유도했던 미 항공모함 바탄함(USS Bataan)의 널(E. T. Neale) 함장 역시 “제95.12기동단대를 통해 수신한 한국 요원의 정보가 특별히(exceptionally) 정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레오파드의 정보에 큰 만족함을 나타냈다. 특히 그는 “처음[2월 중]에는 수일이 지난 정보가 제공되었는데, 버크 소령이 백령도에 사령부를 설립한 이후 정보가 적시(timely)에 공급되고 있다”며 레오파드 사령부의 등장 이후 발생한 정보공급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⁷¹⁾

이와 같은 수동적인 형태의 정보수신에 더해, 유격부대원들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정보작전 역시 병행되었다.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바로 4월 말 시행되었던 몽금포 침투작전이었다. 4월 21일 몽금포 인근에서 정찰활동 중이던 한국해군 소속 PC 703 함정이 본토로부터 해안포 공격을 받았는데, 당시 시정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적군의 해안포 기지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었다. 이에 레오파드 사령부와 협조하여 몽금포 인근에 유격부대원을 침투시켜 해안포의

69) ADM 116/6211, “HMS *Belfast*—Report of Proceedings 16 to 30 April 1951”, HMS *Belfast*, 4 May 1951, Appendix I.

70) Ibid., para. 16.

71) USS *Bataan* CVL 29, “Action Report: period 15 January 1951–7 April 1951”, 17 April 1951, p.VI-3.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 결과 4월 27일, 버크 소령으로부터 북한군 해안포 기지의 정확한 좌표(XC 593252)가 적시된 전문을 수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당 해안포는 영국 항모인 글로리함(HMS Glory)에서 출격한 함재기 공격으로 즉각 파괴되었다.⁷²⁾

적극적인 정보작전의 연장선에서, 유격부대원들을 서해 유엔해군의 작전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공작 부대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쉬칸 작전(Operation ASHCAN)이라 명명되었던 대규모 상륙시위(demonstration landing)였다. 일종의 거짓 상륙작전이었던 아쉬칸은 전방에 집중되어 있던 공산군의 관심을 후방으로 돌리고, 전방에 결집된 전력의 일부를 황해도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작전은 공산 측에 상륙 위협이 실재한다고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당시 반공 유격부대원들이 담당했던 역할이 바로 북한 사회 내에 은밀하게 상륙작전에 대한 소문을 전파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유격부대원들이 본토에 침투하여 유엔군의 대규모 상륙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모호한 소문(vague and nebulous rumours)”을 매우 성공적으로 퍼뜨렸다. 그 결과 상륙시위 당일인 5월 20일, 상륙 예정지점 부근에 영문으로 “유엔군 환영(Welcome UN Army)”이라 쓰인 표식들과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공산군의 결집이 확인되었다.⁷³⁾ 아쉬칸 작전 이후 제95.1기동전대장은 그의 보고서에 “레오파드 조직과의 감탄스러운 연계(admirable liaison)가 공산군을 더 많이 괴롭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만족감을 표하였다.⁷⁴⁾

72) ADM 116/6211, “HMS *Belfast*—Report of Proceedings 16 to 30 April 1951”, Appendix I.

73) ADM 1/22521, “Korean War Reports of Proceedings No.36, 8 May—24 May 1951”,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s letter FO2FE/2960/11, 25 May 1951, pp. 2~7.

74) ADM 1/22521, “Korean War Reports of Proceedings No.36, 25 May—17 June 1951,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s letter FO2FE/2960/11, 22 June 1951, p. 3.

심지어 레오파드 사령부는 5월부터 본토에 침투한 유격부대원을 통해 제95.1기동전대 소속 함정과 함재기가 수행한 공격결과를 관찰하고 전달해주는 역할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 말까지 작전구역 내 북한군 활동정보를 수집할 방법이 없어 곤란함을 겪던 이들 서해 유엔해군이, 이제는 자신들만을 위한 폭격결과 보고서(After Bombardment Report)까지 수령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이들 보고서에는 “6인치 포탄 중 1발이 목표물에 적중했으며 그 결과 5명의 북한군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와 같이 함포사격의 정확도와 그 결과가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었다.⁷⁵⁾ 그리고 이러한 보고서는 서해 기동전대의 작전효과 제고뿐 아니라 이들의 사기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이는 닐 함장의 6월 25일자 보고서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이들[반공 유격부대]은 자주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공격결과를 보고해준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그간 자신의 노력이 실제 생산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조종사들의 기운을 북돋아(heartening) 주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또한 [조종사들이] 공격을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 혹은 무장 선택에 있어서 발생한 실수를 교정할 기반(basis)을 제공한다.⁷⁶⁾

6월에 이르러 레오파드 사령부가 공급하는 작전정보는 양과 질 모두에 있어 한층 더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수개월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격대원들의 정보수집 능력이 신장되었을 뿐 아니라, 유엔지휘부가 사실상 북진을 포기하면서 레오파드 사령부에 정보

75) ADM 116/6218, “HMS *Kenya*—Report of Proceedings 7 to 19 June 1951”, HMS *Kenya*, 30 June 1951, para. 8.

76) USS *Bataan* CVL 29, “Action Report: period 12 May 1951–13 June 1951”, 25 June 1951, p.VI-2.

수집에 더 집중할 것을 명령하였기 때문이다.⁷⁷⁾ 그 결과 서해 기동 전대가 보유하고 있던 폭탄 수량이 부족해 공급받은 표적 정보 중 일부만 선별해서 타격해야 할 정도로 정보 공급량이 급증하였으며,⁷⁸⁾ 이미 보고된 북한군 활동 정보가 매 7일 단위로 최신화되어 제공될 정도로 그 질적 수준 역시 향상되기에 이르렀다.⁷⁹⁾ 레오파드 조직의 등장으로 인해 제95.1기동전대는 서해 전역에 대한 면밀한 해상봉쇄를 수행 가능함은 물론, 종전까지는 거의 불가능했던 공산군에 대한 효과적인 공세활동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작전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뿐 아니라, 반공 유격부대와 서해 유엔해군의 긴밀한 합동작전을 위한 절차와 체계 역시 마련되었다. 우선 3월 17일, 클래어-포드 함장과 버크 소령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두 조직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통신체계의 즉각적인 구축이 합의되었다. 동시에 유격대원이 본토에 침투하여 작전을 수행하던 중 유엔해군의 긴급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함포사격이나 함재기의 출격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체계 역시 논의되었다. 당시 합의된 바에 따르면 모든 긴급지원 요청은 레오파드 사령부를 통해 제95.12기동단대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기동단대장이 지원요청 정보를 확인한 후 가장 적합한 해군전력에 지원명령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유격부대원들의 무분별한 출동 요청으로 서해 봉쇄작전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최적의 전력을 적시에 출동시켜 작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⁸⁰⁾

77) 'Misc Correspondence File', 8240 AU Files, 1951, memorandum, Ltr, Lt Col Koster to Maj Burke, 22 Jun 1951.

78) ADM 116/6212, "HMS *Cardigan Bay*—Report of Proceedings, 24 June to 4 July 1951", para. 7.

79) ADM 116/6212, "HMS *Black Swan*—Report of Proceedings, 17 to 24 June 1951", the Captain (F), Third Frigate Flotilla, HMS *Black Swan*, 2 July 1951, Appendix B.

80) ADM 116/6211, "HMS *Belfast*—Report of Proceedings 12 to 21 March 1951", para. 13.

이러한 지원체계 구축의 효과는 그 합의일로부터 불과 2일 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3월 19일 평안남도 온천군 남하리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유격부대원들의 긴급지원 요청을 바탄함의 함재기가 신속히 응대하여 현장의 유격부대원들이 만족할 만한 작전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기 때문이다.⁸¹⁾

여기에 더해 반공 유격부대원들의 상륙공격작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되었다. 사실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이 2월 중순 처음 구상하였던 유엔해군의 상륙공격작전 지원은 레오파드 조직의 등장 이후에도 일정기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유격부대원들이 작전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6월 초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상륙공격을 거의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6월 중순부터 초도와 연평도에 주둔하는 유격부대원들을 중심으로 상륙인원 100여 명 수준의 공격이 간헐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이들의 상륙작전 모두가 서해 유엔해군과 사전 협의 없이, 그것도 작전 중간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유엔해군의 작전지원 효과를 크게 제약했다는 점이었다.⁸²⁾

보다 효과적인 상륙공격작전의 수행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절차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제95.1기동전대 지휘부는 당시 봉쇄 임무를 총괄하던 실론함의 스링(G. A. Thring) 함장의 주도하에 레오파드 사령부와 상륙공격작전 절차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7월 5일, 대청도에서 두 조직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레오파드 사령부 측 대표로부터 “아군의 함포와 함재기의 공격으로 인해 그의 병력[유격부대원]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81) 당시 함재기는 출격 요청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도착하여 공격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가 “매우 만족스러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버크 소령으로부터 수신하였다. Ibid., para. 16.

82) ADM 116/6212, “HMS *Cardigan Bay*—Report of Proceedings, 24 June to 4 July 1951”, para. 16.

제95.12기동단대장에게 작전에 대해 알려줬다”는 확답을 받았다.⁸³⁾

그리고 같은 날, 서해 유엔해군과 사전에 협의된 최초의 상륙공격작전이 수행되었다. 목표는 작은 마을에 집결해 있는 북한군이었다. 이를 위해 늦은 밤, 소형 정크선(junk)에 탑승한 100여 명 규모의 유격부대원들이 화이트샌드 베이함(HMS Whitesand Bay)의 지원하에 상륙을 감행하였다. 당시 상륙작전은 함포사격 수정만 역할을 위해 무선 통신설비(W/T)를 구비한 한국 해병대원까지 동원되었다. 그리고 북한군 밀집지역에 대한 함포사격으로 시작된 상륙공격의 결과는, 스텔 함장의 표현에 따르면 “꽤 성공적(quite successful)이었다”. 비록 유격부대원의 미숙함으로 인해 상륙시간이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마을에 집결해 있던 북한군에 궤멸적인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다.⁸⁴⁾ 로이드-데이비스 함장에 의해 최초로 그 가능성이 검토된지 약 5개월 만에 합동 상륙공격작전이 실제로 구현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레오파드 조직의 등장은 한국해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서해 유엔해군과 반공 유격부대 간의 초기 협력관계를 급속도로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관계는 레오파드 조직의 성장과 함께 발전을 거듭해 갔다. 실제 레오파드 조직은 7월에 이르러 서해에서 활동하던 반공 무장대원 대부분을 재조직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예하에 총 7,000여 명에 이르는 부대원이 서해상에 위치한 수십 개의 도서를 안정적으로 점유하며, 황해도와 평안도 전역을 주 무대로 활발한 유격작전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⁸⁵⁾ 그리고 이러한 레오파드 조직과의 관계는 서해 유엔해군의 작전을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로 격상시켰다. 이들과의

83) ADM 116/6213, “HMS *Ceylon*—Report of Proceedings from 29 June to 15 July 1951”, HMS *Ceylon*, 15 July 1951, paras. 11~13.

84) Ibid., para. 13.

85) Malcom, *White Tigers: My Secret War in Korea*, p. 22.

관계 속에서 구축된 정보작전과 합동작전 체계는 분명 이들 해군의 작전을 매우 효과적이고 공격적으로 변모시켰기 때문이다. 레오파드 조직과의 관계가 유엔 해군작전에 있어 “전반적으로 탁월한(excellent)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producing)”는 제95.1기동전대장의 7월 8일자 평가가, 당시 구축된 반공 유격부대와의 관계에 대한 영국 해군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식을 확인시켜준다.⁸⁶⁾

5.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영국해군을 위시한 제95.1기동전대가 서해전역에서 봉쇄작전을 담당했던 초기 1년 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들과 반공 유격부대 간의 초기 협력관계의 시작과 이후의 발전과정을 살펴 보았다. 특히 영국해군의 시각에 기반하여 그동안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폭넓게 연구되지 못한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일면을 조망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 영국해군에게 있어 반공 유격부대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개전 초기부터 서해전역에 대한 봉쇄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 수집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정보조직으로서 그 가치가 높았던 반공 유격부대와의 협력은 서해 유엔해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반대로 반공 유격부대원들에게 있어서도 유엔해군으로부터의 지원은 필수적이었다. 이들의 작전이 대부분 서해 도서를 기반으로 하여 본토에 상륙 침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기에, 유엔해군의 화력지원이 요구되는

86) ADM 116/6213, HMS *Ceylon*—Report of Proceedings from 28 May to 10 June 1951, HMS *Ceylon*, 10 June 1951, CTG 95.1’s Comments, 8 July 1951.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두 조직 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공생적이며 동시에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띄고 있었다.

하지만 두 조직 간의 초기 협력은 신뢰성의 문제로 인해 일정 기간 지지부진한 수준에 머물러야 했다. 반공 유격부대원들이 처음 서해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들은 단지 북한 출신의 그 목적 역시 불확실한 비정규집단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그 어떠한 유엔군 집단으로부터도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았기에, 영국해군을 중심으로 한 서해 유엔해군 지휘부는 이들 무장집단과 협력관계를 심화하는 데 있어 신중함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관계의 전환점은 이들이 유엔군에 의해 조직화 되기 시작하며 발생하였다. 서해상에서 무질서하게 활동하던 민간 무장조직이 한국해군과 미 육군의 지휘체계 내에서 유격부대로 재편성됨에 따라, 당초 협력관계를 저해하였던 신뢰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협력 과정에서 이들 유엔군 조직이 보유한 인력과 체계가 유용하게 활용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형태의 협력관계 형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서해 유엔해군과 반공 유격부대 간의 해상협력체계는 특히 레오파드라고 통칭되었던 미8군 사령부 예하의 유격부대 조직이 등장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맥기 대령과 버크 소령의 주도하에 서해상에 산재해 있던 무장조직 대부분이 신속하게 레오파드 부대로 재편됨에 따라, 서해전역 내 유엔해군과 유격부대 간의 해상협력체계가 다방면에 걸쳐 발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작전정보 수집 및 정보교란 등을 포함하는 정보작전과 긴급 화력지원 및 상륙공격 작전 등을 포함하는 합동 작전체계의 구축으로 대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해상협력체계의 등장은 단기간 내에 서해 유엔해군의 작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1950년 7월 이래 서해전역에

서 비효율적이고 수동적인 형태의 봉쇄작전을 지속하였던 유엔해군이, 이제는 작전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짐은 물론, 북한 본토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공세작전을 감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조직 간의 긴밀한 협력작전은 결과적으로 공산 측 후방에 대한 큰 위협이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1951년 말 중국군으로 하여금 서해 도서에 대한 대대적인 해상공세 작전을 감행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⁸⁷⁾

그 결과 서해 유엔해군의 작전수행에 있어 반공 유격부대의 역할은, 영국해군 지휘부로부터 ‘필수적인(essential)’ 또는 ‘감탄스러운(admirable)’ 등과 같은 형용사로 묘사될 정도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1951년 중반에 이르러 안정적으로 구축된 해상협력체계는, 이후 2년간 지속되며 6·25전쟁 후반기 유엔해군의 서해전역 작전 운영의 핵심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21. 1. 4, 심사수정일 : 2021. 2. 4, 게재확정일 : 2021. 2. 24.)

주제어 : 6·25전쟁, 반공 유격부대, 영국해군, 제95.1기동전대, 한국해군

87)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212~213쪽; 공산 측의 해상공세에 대한 유엔군의 방어작전 수행과정에서 반공 유격부대가 보인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김인승, 「6·25전쟁기 서해 해상공방전(海上攻防戰)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제90집, 2019, 147~185쪽.

<참고문헌>

1. 1차 사료

ADM 1 – Admiralty, and Ministry of Defence, Navy Department:
Correspondence and Papers– SERIES II: 1946–1951
(plus strays 1916–1945, 1952–1956).

ADM 116 – Admiralty: Record Office: Cases–Subseries within
ADM 116–ACTIONS WITH THE ENEMY(3)–Reports of
Proceedings–Korean War.

ADM 234/385,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
53(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1967).

DEFE 11 – Ministry of Defence: Chiefs of Staff Committee:
Registered Files–British Commonwealth Forces Korea:
Situation Reports.

FO 371 – Foreign Office: Political Departments: General Correspondence
from 1906–1966 – POLITICAL: FAR EASTERN: Japan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Report on
US Crimes in Korea”, (31 March 1952).

John H. McGee, “McGee letter to Colonel Rod Paschall”,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Carlisle, Pennsylvania, 24
March 1986).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57화–망각의 전쟁, 황해도 신천 사건」,
(2002년 4월 21일 방송분).

USS Bataan CVL 29, “Action Report: period 15 January 1951–7
April 1951”, 17 April 1951.

_____, “Action Report: period 12 May 1951–13
June 1951”, 25 June 1951.

2. 2차자료

- 김인승, 「한국전쟁 해전사(海戰史) 연구자료의 발굴과 그 효용성: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을 중심으로」, 《軍史》 110, (2019).
<https://doi.org/10.29212/mh.2019..110.11>
- _____, 「한국전쟁기 서해 도서공방전(島嶼攻防戰)의 발발 : 공산군의 대화도 공격을 중심으로」, 『韓國軍事學論集』 第75輯 第1卷, (2019).
<http://doi.org/10.31066/kjmas.2019.75.1.007>
- _____, 「6·25전쟁기 서해 해상공방전(海上攻防戰)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제90집, (2019).
<https://doi.org/10.29004/jkmch.2019.9.90.147>
- 김학준, 『미소냉전과 소련 군정 아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1946년 1월-1948년 9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8).
- 김행복, 「북한군의 양민학살에 관한 연구」, 조성훈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정용욱, 「[書評] 한구전쟁기 특수전 연구와 Dark Moon」, 『軍史』 40, (2000).
- 조성훈, 「증언자료의 비판적 활용-6·25전쟁 시기 유격대의 경우」, 『기록학연구』 12, (2005).
- _____,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계룡: 해군본부, 2012).
- Alcock, Christian P., “Britain and the Korean War, 1950-1953”, (PhD Thesis,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1986).
- Cleaver, Frederick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Study, Operations Research Offic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6).

- Cutler, Thomas J., “Sea Power and Defense of the Pusan Pocket, June–September 1950”, Edward J. Marolda (ed.), *The U.S. Navy in the Korean War*(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2007).
- Evanhoe, Ed, *Dark Moon: Eight Army Special Operations in the Korean War*(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1995).
- Farrar–Hockley, Anthon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London: HMSO, 1990).
- Malcom, Ben S., *White Tigers: My Secret War in Korea*(Washington D.C.: Brassey's, INC, 2003).
- U.S. Army Forces, Far East, 8086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1951–1952”, Project MHD–3, Tokyo (March 1954).
- W. Cagle, Malcolm and A. Manson, Frank, 신형식 역, 『한국전쟁 해전사』 (21세기군사연구소, 2003).
- Yoichi, Kibata, “Commonwealth Cooperation and Rivalry”, in Ian Nish (ed.), *The British Commonwealth and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1945–1952*(Leiden: Brill, 2013).

(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Develop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Western UN Naval Forces and the Anti-Communist Commando Unit in the Korean War

Kim, In-seung

This thesis examines the activities of the anti-Communist guerrilla unit on the west coast during the Korean War, particularly based on the primary resources produced and collected by the British Royal Nav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very significant, but not been studied enough on their co-operation with the Western UN Naval Forces. For this purpose, this thesis seeks to explore the beginning and development of UN naval and the guerrilla unit co-operation system during the first one year of the war. As the naval-guerrilla unit relationship was initially started from mid-December 1950, and was able to be settled down in July 1951, to understand the guerrilla's role in the conduction of the UN naval operation, it is important to focus more on the early part of the Korean War. This thesis shows that, to the Western Naval Forces, working with the irregular groups was operationally essential to the conduct of the naval blockade mission, and this naval-guerrilla relationship was of major factors during their naval campaign in Korea.

Keywords : The Korean War, Anti-Communist Guerrilla, The Royal Navy,
Task Group 95.1, The ROK Navy

